이 있으나 保存은 良好하다。上·下基壇의 中石은 撐柱各一로서 區分되었고 上層基壇은 一石造인데 上層甲石上의 初層塔身받침이 特大함은 注目되는 바이다。塔身과 屋蓋石은 各一인데 (第四層屋蓋와 五層塔身만은 一石) 塔身에 있어서는 第二層以上 減縮率이 매우 크며 屋蓋받침은 一、二層은 四段 三—五層은 三段으로 安定感을 보이며 相輪은 露盤만이 남아 있다。各部의 彫法은 鈍厚하나 石材의 結構는 整齊하고 身部와 基壇은 均衡을 얻은 佳作으로서 現高 八尺七寸三分、下甲 幅 五尺九寸八分 上甲幅 四尺三寸一分。이 塔은 原位置에 있다고 하나 所屬寺院은 不明이며 年代는 高麗로 推定되었으나 그 後 重修가 있었다고 傳하며 日帝時부터 數次賣買交涉이 있었다 한다。

「멘힐」(立石) 雜記

金 元 龍

巨石紀念物의 하나로서의 「멘힐」(menhir)은 主로 西部유럽에 많이 分布하고 있으며 英國、北阿、近東地方에도 퍼지고 있고 東洋에서는 南쪽은 인도네시아、버—마、北은 시베리아、蒙古、韓國 等地에 있다。이것은 自然 石柱를 세운 것이며 어떠한 信仰의 對象物이었음이 틀림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全南 順天北方 立石里의 例나 또는 忠南 保寧郡 媚山面의 例나 모두 南方式支石墓 群在地에 서 있어 興味를 끈다。順天의 立石은 鳥居龍藏氏가 一九二二年에 紹介하고 있는데 (人類學雜誌三七卷一〇號) 그의 一九一三年當時의 實見談에 依하면 그 立石에는 恒常 洞民들이 새끼줄을 치고 벗짚으로 덮을 뿐 아니라 「藥寶殿」(짚으로 祠形처럼 만든것?)을 그 위에 씌워 神體로서 祈願하고 있었다고 한다。이 順天立石은 高 一·二미터 程度의 圓錐形石柱이며 石柱基部에는 塊石들이 散在하고 있다。

以北에서는 有名한 通溝의 廣開土王碑가 元來는 「멘힐」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萬一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神道碑로 한 將軍塚은 그 立石의 位置에 따라서 適當한 位置에 建墓한 것이되는데 事理上 그리 自然스러운 일같지 않다。어느 무덤을 쓰는데 碑石부터 먼저 격정하고 그 자리에 따라 墓地를 選擇한다는 것은 있을 법하지 않다。이것은 亦是 墓地를 먼저 選定하고 다음이 碑石이 될 原石을 어디서 運搬해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나 運搬해오기 前의 그 碑石原石이 果然 立石이었는지 아닌지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그런데 지난번 東京博物館에서 볼 수 있었던 「문화유산」(五九—二)에 依하면 平北 龍川郡 신암리에도 立石이 있으며 그 附近에서 環石斧가 採集되었다고 하며 또 平北 寧邊郡 남산리에서 發見된 高 三·四五미터의 멘힐에는

「開闢舊物 桑海高邑」

이라는 刻字가 있다고 한다。이 刻字가 어느 때 것인지는 알지 못하나 古人들이 그러한 立石을 天地開闢時의 古物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滋味있다。다만 桑海高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갑짜기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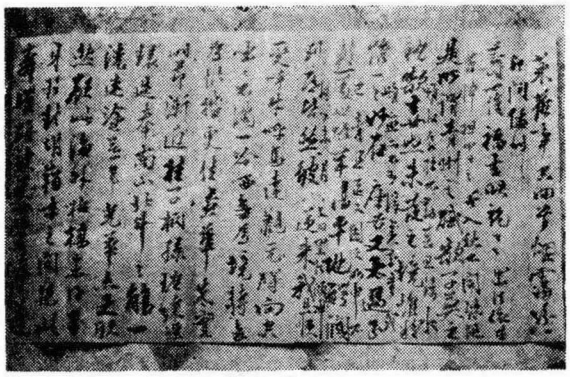
유럽의 立石은 大體로 靑銅器時代에 屬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것도 앞에 말한 順天이나 保寧의 例로 보아 靑銅器時代에 屬한 것이 틀림 없을 것 같다。그리고 立石의 性格에 對해서는 辟邪的存在로서의 男性生殖器 崇拜와 關聯시켜 解釋할 수 있을지 모른다。

金正喜先生의 簡札

鄭 然 權

日前에 偶然한 機會에 오랫동안 死藏되었던 秋史 金正喜先生의 書札 數枚를 入手하였는데 그 中의 하나가 阮堂이 濟州에 流配時 謫所에서 쓴 것으로 筆致는 老筆이라 할나위도 없이 蒼蔚勁健 名筆인데다 內容이 또한 心琴을 울리는 바、하도 좋아서 敢히 紹介하기로 하였다。

即問恁時



壽履福吉耿祝耿祝
累從 依昔是所謂靑州之賦歛、子莫之執歛、喜怒未發之境惟精惟一之妙、在座右、又太過分數處、世路羊腸、平地鰐瀾、到皆然、被以逆來、我且順受、呼牛呼馬、達觀无碍、向空咄々不滿一冷哂無爲境、轉無爲蚍撼更佳黃華朱實時節漸近、桂子桐孫、班綵瑤環、迭奉南山北斗之觴、一洗迷塗暮年光華、亦足欣然、顧此海外枯槁、未得呈身於封胡羯末之間、挹此壽曜頌祓无彊、多少蓬萊舊事、空回首烟靄紛紛、紛蕉悴阻胃之苦、入秋不開、饑渴難收、食指不動、甚思錦水雌魚而不可得矣、前書或已靑照適又因便、略申不備、丁未八月十七日 累從 渤冲

札簡史秋

文敎部에서는 十二月七日附로 다음과 같은 十點의 國寶를 새로 指定하였다。

吾園筆 梨谷山莊圖

—第二卷 第一號 通卷 六號—

全 鎣 弼

우리나라 近世畵人中 가장 代表的인 作家의 한 분인 吾園 張承業의 作品은 山水 人物 翎毛 器皿 折枝 等 훌륭한 遺作들이 많이 保存되어 잘 傳해오는 것은 우리들이 다 같이 기뻐하는 바이나 謙齋나 玄齋같이 我邦山川의 眞景을 그린 作品을 別로 볼 수가 없고、또 檀園이나 惠園같이 鄕土의 風習物情을 主題로 한 風俗畵를 보기 힘드는 것은 적으이 섭섭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吾園의 神韻生動하는 筆致와 無所不能의 솜씨로 金剛山이나 紅流洞을 그린 作品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興趣가 있을 것이며 시냇가에서 빨래하는 漂母나 나물캐는 색시를 그린 小品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반가운가 하는 생각이 날 때가 많으니 이것은 한갓 筆者만이 느끼는 안타까움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二十五·六年前 偶然한 機會에 筆者는 헌책과 휴지뭉텡이 속에서 뜻밖에 眞景圖와 風俗圖가 한꺼번에 그려진 吾園의 大作 梨谷山莊圖 一幅을 얻었으니 그 때의 기쁨이란 이루 形言할 수가 없었다。

梨谷山莊圖는 橫이 一二五·六㎝ 堅가 六三·一㎝의 大幅橫披로서 峨嵯山下의 梅谷이라는 風光이 아름다운 골자기에 數 三棟으로 된 山莊이 中心이 되어 左右로 展開되는 我邦 特有의 멋진 田園風景이 吾園의 무르익은 筆致로 그려졌는데 부드러운 기운이 畵幅에 가득차 있었다。

山莊의 뒤는 鬱蒼한 巨樹古木의 森林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뒤로는 멀리 峨峨한 高山의 雙峰이 솟구쳐고 疊疊한 遠近의 連峰들이 左右를 물결치며 屛風을 두른 듯하다。

山莊 넓은 앞들을 지나면 다시 奇樹怪岩으로 된 아담한 앞산이 있고 뜰